

## 인천건축의 현재

##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Incheon

손장원 / 안동공업전문대학 건축과 전임강사  
by Son Jang-Won

## 인천의 지역적 특성

지역문화는 그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삶의 총체적인 양상이다. 지역문화의 주체자인 지역주민은 그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 속에 존재하는 자연환경, 역사환경과 어우러진 독특한 문화양상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역문화는 외래문화를 배척하는 수구적인 자세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주체성을 형성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존재할 때 그 의미가 있다. 더구나 지역문화의 율타리 역할을 담당해 온 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교통, 통신의 발달로 그 의미가 퇴색된 현대생활에서 다른 지역과 현격한 차이를 갖는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지키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 지역의 특성을 찾는 것보다 특성을 상실한 사례를 찾는 것이 오히려 손쉬운 일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점은 인천도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더구나 삼국시대부터 외국과의 교류<sup>1)</sup>가 이루어진 인천에서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에 형성된 것과 같은 독특한 지역문화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걸쳐 강력한 흡인력을 갖는 서울에 인접한 인천에서 형성될 수 있는 지역문화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인천인구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착없이 인천을 잠시 머무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인천에는 '주인이 없다', '지역색이 없다'라는 말을 안팎에서 한다. 그러나 바다를 배경으로 지역문화를 형성한 인천에서 정작 중요한 문제는 해방 후 인천에서 사라진 "인천바다"를 찾는 일이

다. 인천의 바다는 공업화와 남북분단이 만든 공장과 철책너머에만 존재하는 피안의 바다이다.

바다에 인접한 고장은 많다. 그러나 인천바다는 물상으로 존재하는 바다가 아니다. 인천바다는 여기서 전개되었던 역사 속에 함축된 개방성, 포용성, 진취성을 담고 있다. 결국 바다를 상실한 인천은 지역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근간을 잃어버린 채 인구250만을 수용한 서울의 변두리가 되어있다. 지역의 문화여건이 열악한 인천에서 지역문화를 나타내는 직접적, 가시적인 요소인 지역건축의 실체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추론을 배경으로 해방 후 현재까지 인천지역에서 활동한 건축가와 대표적인 건축물을 연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인천건축의 정립을 위한 시론(試論)을 전개하고자 한다.

## 인천건축의 연대별 특성

조선 말 비록 외세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지만 개항 이후 인천은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교역과 문물교류가 이루어지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남북분단이 고착된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정책과 서울과 인접한데 따른 반사이익으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인천은 지역성을 잃었고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그대로 지역건축가와 건축물에 파급되었다.

1950년대 인천건축은 전후복구와 관련하여 관청, 학교, 극장, 상업시설이 건축된 시기로 국내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국제주의 경향의 건축물이 주류를 이루었다. 인천 최초의 국제주의 건축물로 인하공대 기계공학과(鄭寅國, 1955) 세련된 고층의 단순미를 강조한 구 인천사범학교 본관(현 인천광역시 청소년회관, 1957), 근대건축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 유리의 사용이 두드러진 제물포 고등학교 도서관(1959), 수직, 수평루버를 과도하게 표현한 인천세관(1959) <사진1> 등의 건축물이 세워진다. 당시 인천에서 활동한 건축가는 심의권(靑松公務所), 김동진(大成公務所), 김중희(合同),

1)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능허대(凌虛臺)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조 중엽(광해군 대)까지 중국으로 가는 사선이 출발하던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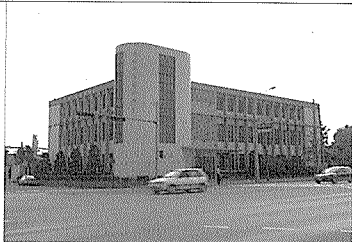


사진1. 인천세관(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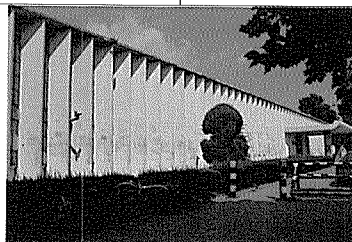


사진2. UNESCO실습관(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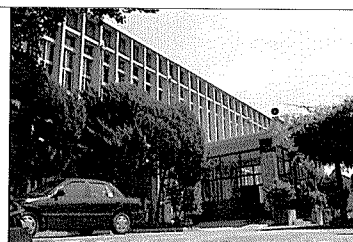


사진3. 인천시립도서관(1962)

김남규(仁川公務所), 박창준(中央公務所), 김응연(新興公務所)등이다.

1960년대 인천은 정부시책으로 추진한 수출진흥정책에 따라 공업의 거점도시로 변모한다. 이 당시 인천시에서 공업지역이 차지한 면적은 35.216km<sup>2</sup>로 인천시 전체 도시계획면적의 20.8%에 달하는 면적이었다. 이에 따라 많은 공장건축물과 사무실이 건축되었지만 인천성을 건축으로 승화하려는 노력은 없었다. 다만 국제주의 양식에 대한 단순모방에서 탈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상징성과 형태의 다원화를 도모한 건축물의 등장과 인천에서 건축을 수학한 인하대학교 건축과의 건축참여이다.

대표적인 건축물은 UNESCO실습관(1962, 독일인)〈사진2〉, 인천시립도서관(1962, 인하대 건축과)〈사진3〉, 인천 제1공보관(1965, 인하대 건축과), 인하공대 수조관(1969, 인하대 건축과), 올림프스호텔(1965), 인천소년회관(1969, 김중희), 제일은행 인천지점(1970, 나상기)등이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 인천은 근대공업도시로의 본격적인 성장이 진행된다. 서울의 구로공단과 연계하여 한국수출산업4·5·6공단<sup>2)</sup> 인천기계공단 등 총 5.7km<sup>2</sup>에 달하는 공단이 조성되었으며 공장건축은 더욱 가속된다. 이와 같은 공업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규모나 성격면에서 주목할 만한 건축물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근대건축이 퇴조하고 지역성을 추구하는 건축이 성행된 당시의 세계적인 건축경향과 달리 고도경제성장정책의 전진기지인 인천에서는 합리주의에 충실한 건물이 지속적으로 건축된다.

이 시기는 주로 수직성, 수평성을 강조한 건물인하대학교 본관(1971, 원정수)〈사진4〉, 인천지방항만관리청(1973)〈사진5〉, 인천시민회관(1974)〈사진6〉, 인천상공회의소(1975)〈사진7〉과 웅진군청(1971), 인천실내체육관(1975), 인천체육전문대학 교사 및 체육관(1975, 김중희), 화도교회 신관(1976), 경기반공회관(현 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 1978, 홍철수)등이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또한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주택수요충족을 위해 ADB차관을 재원으로

서민아파트(15평형 5층)단지가 구월동에 건설되었다.

1980년대 인천은 직할시로 승격(1981)하였으며,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제한정비권역으로 지정되어 도시화와 인구집중제한정책이 실시된다. 그러나 남동공단조성사업(면적 9.55km<sup>2</sup>, 1985)이 착공되어 수도권에 산재하고 있던 공장들이 인천으로 입주하여 공업도시화가 심화된다. 또한 경기도에 속한 계양면(김포군), 영종면과 용유면(옹진군)을 편입(1989)하여 관할면적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도시화, 공업화는 지역경제규모의 확대, 인구유입의 촉발, 경제활동과 유입인구를 수용할 많은 건축물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작가정신에 투철한 지역건축가들의 작품활동 또한 증가하였다. 또한 작품성을 갖춘 건물이 인천 여러 곳에 세워져 건축관련 정기간행물에 수록되는 사례도 늘어나지만, 인천성을 탐구하고 이를 건축화하는 작업은 없었다.

이 시기에 세워진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컬러유리를 커튼월로 사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도모한 잔치뷔페(1989, 송광섭), 인천투자금융사옥(1989, 최동규)〈사진8〉과 석재를 주요 마감재로 사용한 인천직할시청사(1982, 박승)〈사진9〉, 한미수교100주년기념탑(1983)〈사진10〉, 한국은행 인천지점(1983, 원정수+지순)〈사진11〉, 인천상륙작전기념관(1984, 김수근)등이 있다. 이외에 부평도서관(1981, 동인건축), 인천길병원(1981) 한국전력 인천사옥(1981, 유주현), 강화도산품전시관(1984, 김지덕), 인천송도호텔(1986, 송기덕), 주안도서관(1988, 동인건축), 부평도서관(1989, 동인건축), 인천상공회의소 남동지소(1989, 태건축), 등을 대표적인 건축물로 들 수 있다. 특히 인하대학교 학생회관(1986, 조성룡+장기성)〈사진12〉은 뛰어난 작품성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

90년대에 들어서 인천은 인천-중국간 정기여객선 취항(1990), 서해안 고속도로 착공(1991, 인천국제공항 착공(1992)등으로 입체적인 교통망의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2) 1990년대에 들어서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들 공단에 입주했던 업체들이 국내외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공장이 떠난 대지에는 예외 없이 아파트가 건설되며, 이 아파트에는 서울에서 전입한 사람들이 입주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인천과 서울의 관계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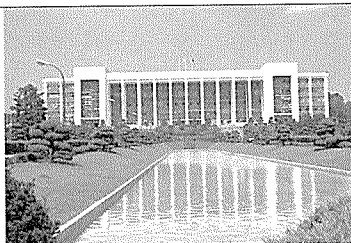


사진4. 인하대학 본관(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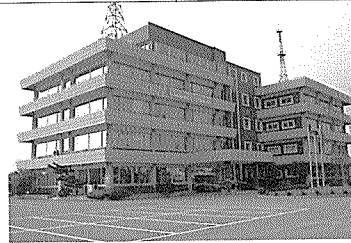


사진5. 인천지방 항만관리청(1973)



사진6. 인천 시민회관(1974)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광역시로 승격되었으며, 경기도에 속한 강화군, 옹진군, 검단면(김포군)지역을 인천으로 흡수(1995)하면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독자적인 발전을 추진할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물리적인 여건의 확충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건축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여건과 시민의식의 변화는 해방 후 상실되었던 관문기능의 부활과 인천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건축분야에서는 공공건축물 설계에 다양한 방식의 설계경기와 인천광역시건축상을 신설(1995)하여 지역건축가의 창작의욕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창작성이 돋보이는 건축물이 여러 곳에서 세워져 인천건축의 정립에 희망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의식없이 단지 건축설계를 건축물 앞부분 꾸미기 정도로 오해한 건축가들은 적당한 크기의 창문과 모양, 수직, 수평의 띠두르기, 입구장식(캐노피, 삼각프리즘, 반원형)정면에 과도한 유리마감 등 판에 박힌 방법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소위 집장사라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도면화는 건축가들의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건축가들은 지역성을 갖는 건축물이나 창작과정을 통한 설계보다는 건축법의 허용한도 내에서 최대의 건폐율, 용적률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양산하는데 이러한 현상 또한 인천건축이 갖는 단면의 하나이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건축물로는 인천약사회관(홍대원), 인천시립박물관(1991, 임장렬), 송도성당(1992, 김중섭), 경기은행 본점(1992, 정림건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1994, 장석웅), 부평구청(1996, 창일건축), 박내과의원(1996, 두인건축), 인천남동농협(1996, 김영섭), 인천혈액원(1997, 무영건축), 서구청, 남동구청 등의 공공건물과 더불어 다천장(1993, 송광섭), 후연재(최외자) 등의 주택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해방 후 인천의 변천과정과 지역에서 이루어진 건축활동을 살펴보았다. 인천은 서울에 인접한 데 따른 반사이익의 추구만으로도 도시의 발전이 계속될 수 있

었다. 또한 인천성을 이해하고 이를 건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건축물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성을 상실한 인천에서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해안 시대의 개막, 인천국제공항 개항 등 인천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는 인천의 독자적인 발전추구와 실질적인 의미의 지역문화가 인천건축을 요구하고 있다.

### 인천건축을 위한 시론(試論)

건축은 건축가의 창조적 행위가 끌어안아야 할 인간생활의 총체적 요구이다. 지역건축의 형성근거는 지역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근간으로 형성된 지역민의 공통적 성향에 따른 인간생활의 총체적 요구를 수용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건축은 단지 특정한 시기에 존재한 양식이나 사건으로 형상화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역에서 이루어진 역사, 사람들의 성격, 지리적 특성들이 결합된 피상적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각 지방에서 그 지방임을 느낄 수 있는 유·무형의 것이 있는 것처럼 인천에도 분명 인천을 나타내는 것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인천건축시론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인천건축의 행위자는 인천에 거주하거나 작업하는 건축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건축가라 해도 인천을 이해하고 이를 건축행위로 연계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인천의 외양만을 건축형태로 구현하였다고 인천건축가라고 말할 수 없다. 인천성을 형상화하는 작업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면 대지의 장소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변의 건물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 인천건축에 좀더 다가서는 것이다.

아울러 인천건축은 건축가들의 노력만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가들의 지역성 탐구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는 건축주가 많아야 한다. 건축주가 시민인 공공건물이나 관청의 경우는 인천의 지역성의 구체화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역문화의 정립을 위해서 반드시 지역성이 건축물의 내외부에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상설계시 관공서에서 제시하는 높은 기단, 열주랑으로 대표되는 어설픈



사진7. 인천상공회의소(1975)



사진8. 인천투자금융사옥(1989)



사진9. 인천시청(1982)

전통성 문제, 수직성이나 수평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시민을 위압하는 문제, 프로그램이 같다는 이유로 제기되는 유사한 평면구성 문제 등은 건축가의 창작의욕을 상실시키는 동시에 지역성 구현을 어렵게 한다.

다음은 인천건축의 형상화 과정으로 인천에서 찾을 수 있는 물상을 추상화하고 이를 건축물로 형상화하는 작업이라고 본다. 건축가들은 오랫동안 자연의 형태 속에서 찾아낸 법칙이나 모티프를 건축에 표현하고자 한 것처럼 '인천법칙', '인천모티프'를 찾아 이를 건축작업과 연계해야 한다. 예로부터 그 기능을 수행한 관문으로서 특정할 수 있는 인천이나, 지금처럼 각 지방에서 모여 든 사람들에 의해 구성된 인천이 갖는 공통개념을 찾고 이를 형상화하는 작업 속에 인천 모티프가 존재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생성된 인천모티프는 지역건축물에 추상적, 은유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바다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푸른색을 표현한다든지, 파도모양으로 외관을 덮는 식의 접근은 유치한 발상일 수 있다. 인천의 해양성과 관련하여 배를 형상화함에 있어서는 단지 눈에 보이는 물상으로서의 배가 아니라 배가 갖는 의미와 그 속에 담긴 삶의 기쁨과 슬픔이어야 하며, 또한 인천의 배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사실들을 엮어 이를 올바르게 형상화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만일 은유와 추상이 아닌 그저 물상으로서의 배에 집착한다면 모든 항구도시에는 배처럼 생긴 건축들로 가득 찰 것이다.

인천건축은 인천적인 요소를 재현하려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인천성을 탐구하는 적극적인 창작행위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형상화된 건축물의 이미지에서 인천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역사성에서 출발하는 형상화작업으로서의 인천건축은 철저한 자기인식과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역사성의 표현방법 또한 창작적 사고를 통한 인내의 결과이어야 한다. 전통건물의 외양을 묘사한 강화도특산품전시관, 강화군립도서관이나, 고인돌의 형태를 여과없이 표현한 인천시립박물관<sup>3)</sup>은 직설적인 표현방법의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인

천시립박물관은 작위적인 형태를 위한 내부공간과 괴리된 내밀기, 과도하게 돌출된 처마와 거대한 성벽 같은 이미지에서 친근감을 갖는 인천시민은 없다. 아울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장석웅)은 경남문화예술관(1985, 김중업)의 기단, 기둥처리 및 처마에서 느낄 수 있는 형태요소의 유사성에 대한 논의는 그만둔다 해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sup>4)</sup>과 원주치악예술관(장석웅)의 외관과 어프로치(Approach)에서 보이는 유사성은 전통성에 집착하여 지역성을 잃은 예이다.

장소성을 나타내는 작업으로서의 인천건축은 지역건축에서 발견되는 공통요소로 장소와 지형에 대한 예리한 의식을 드는 케네스 프렘튼의 이야기처럼 대지에 애정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의 결과는 인천이 갖는 자연환경과 건물을 배경으로 지역성을 느낄 수 있는 인천건축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상록작전기념관은 외양에서 품기는 권위적인 요소와 달리 청량산과의 조화는 장소성을 나타내는 인천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대지 내에 세운 인천시립박물관은 인천시민이 가장 아끼는 청량산의 능선을 여지없이 파괴하여 장소성 부재를 나타내는 단적인 예이다. 1층 바닥을 20m정도 밑으로 내려 박물관 전면도로에서 고저차 없이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처리했다면 지금처럼 눈에 거슬리는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장소성을 읽을 수 있는 공공건물이 거의 없는 것과 달리 장소성이 뛰어난 주택은 인천건축의 편린을 보여준다. "다천장"은 청량산과 송도 앞바다를 효과적으로 해석하였으며, 인천의 발상지인 문학동에 인접한 "후연재"는 도시화 이전에 대지주변에 형성되었던 이미지를 형태화하고 있다.

인천의 특성을 무시한 채 실시된 국가주도의 공업도시화는 인천의 건축가는 이러한 지역의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인천건축을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인천사람 누구나 '인천성'을 화두로 안고 살아야 한다.

3) 인천시립박물관은 우리나라 건축문화에 기여한 공로로 1991년 대한건축사협회상을 수상하였다.  
4)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인천시가 설계경기를 실시하여 건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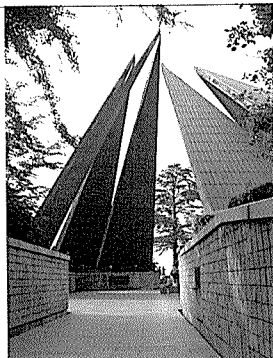


사진10.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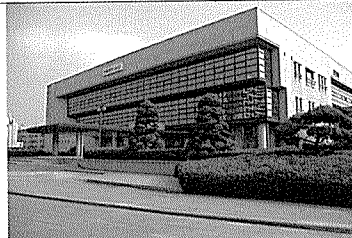


사진11. 한국은행 인천지점(1983)



사진12. 인하대학교 학생회관(1986)